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세월은 약이 아니다

김 도 연
소설가

지난 봄날 나는 강원도의 어느 산골에 자리한 문인 집필실에 입주해 있었다. 그곳에서 다른 작가들과 함께 글을 쓰고, 산책을 하고 술을 마시며 봄날을 건너가던 중이었다. 때늦은 눈이 내리고, 비가 내리고 마침내 봄을 알리는 목련이 하나둘 피었다.

비가 눈으로 변해 아직 활짝 피어나지도 못한 목련이 얼어버렸고 그 참담한 모습을 목격한 시인, 소설가, 동화작가 들은 아침부터 술잔을 기울여야만 했다. 그 얼마 후 제주도로 수학여행 가던 학생들과 일반인들을 태운 한 척의 배가 맹골수도(孟骨水道)에서 천천히 가라앉고 있었다.

그렇게 잔인한 봄여름이 지나고 가을의 문턱에 도착했다. 그 사이 무슨 일들이 벌어졌는지는 일부러 눈을 감고 귀를 막아도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말복과 입추가 겹친 날 세월호 특별법에 여야가 합의했지만 곧바로 유가족과 시민사회단체는 세월호 특별법 무효를 선언했다.

요지는 이렇다. 참극에 대한 1차 책임이 있는 집권세력이 진상조사위와 특검을 꾸리는 주도권을 갖게 되었다는 것. 진상조사위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지 않는 특별법 합의는 의미가 없다는 것.

게다가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별검사가 무슨 조사를 제대로 할 수 있겠냐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기득권 세력에게 면죄부를 주고 동시에 축소, 은폐의 길을 열어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지난 네 달 동안 우리는 착잡한 심정으로 텔레비전과 신문, 인터넷을 들여다보며 살아왔다. 술을 마시다가도 문득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술에 취해도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 서둘러 자리에서 일어났다. 가까운 사람들과 웃고 떠들다가도 문득 이 웃음이 과연 온당한 웃음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 얼굴의 웃음을 황급히 지우기도 했다.

복 더위를 넘기기 위해 삼계탕 집에서 닭 뼈에 붙은 고기를 게걸스럽게 뜯다가도 갑자기 죄송한 마음이 들어 젓가락을 놓고 슬그머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들이 아직도 울고 있기 때문이었다. 그들이 아직도 차가운 바다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그들이 아직도 뜨거운 천막 안에서 아무것도 먹지 않은 채 눈을 부릅뜨고 있기 때문이었다.

결국 우리는 술 냄새를 감추고 얼굴에서 웃음을 지우고 입술에 묻은 기름기를 닦은 채 저자거리를 떠나야만 했다. 혹시 우리의 불의(不義)로 인해 이 모든 일이 벌어진 것은 아닌가 하는 죄의식을 껴안은 채.

세월호를 둘러싼 온갖 의혹들이 세상에 떠다니고 있다. 동시에 사람들은 내 일이 아닌 것을 다행이라 여기며 조금씩 세월호를 잊어가고 있다. 잊지 않겠다고 했었지만 세월은 그렇게 놔두지 않는다. 세상은 너무나 빨리 돌아가고 새로운 사건은 마치 예정돼 있었던 것처럼 뻥뻥 터진다.

하지만 우리는 저 캄캄한 바다 속에 아직 남아 있는 아이들의 억울한 죽음이 외롭지 않도록 기억해야만 한다. 언제, 어떻게, 누가, 무엇을 잘못해서 그리 되었으며, 또 누가 무엇을 감췄고, 누가 어떻게 꼬리를 자르고 달아났는지 하나하나 또렷하게 밝혀내고 머리에 새긴 뒤에야 비로소 다시 출발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 앞에 겉모습만 바뀐 세월호가 도착해 다시 침몰을 준비하고 있을 게 틀림없다. 그 세월호에 탑승할 여행객이 바로 나일지도, 당신일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그 다음 세월호, 또 그 다다음 세월호, 앞으로도 똑같이 침몰할지 모를 무수한 세월호들에 우리가 오르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세월은 약이 아니다. 세월이 약이 되어서는 안 된다. 여야가 합의한 특별법은 결국 세월이 약이라고 우기는 특검에서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 못할 게 틀림없다.

온갖 의혹들의 시비를 밝히고 억울하게 죽어간 수많은 희생자들과 그 유족들, 그리고 국민의 아픔을 치유하는 길은 제대로 된 특검법을 만드는 것 뿐이다.

그것만이 지난 봄 채 피어나지도 못하고 떨어진 꽃들에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유일한 위로며 동시에 미래에 대한 약속이다.

의료칼럼

여름철 건강관리

한 상 원
세계로병원 2내과 원장

여름철엔 무더위와 습한 날씨로 체력이 떨어지고 면역력이 약화되기 쉽다. 그래서 건강에 각별히 신경을 쓰지 않으면 예기치 않은 질병으로 고생할 수 있다. 여름철에 잘 걸리는 질병에 대해 알아보고 대처하는 지혜가 필요한 이유다.

에어컨 보급이 급증하면서 냉방병이 새로운 현대병으로 부상하고 있다. 냉방병은 아직 의학적으로 뚜렷하게 정의할 수 있는 병명은 아니지만 에어컨을 사용하면서 우리 신체에 발생하는 건강상의 문제라고 보면 된다. 냉방병은 체온이 급격하게 떨어져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체온이 급격하게 자주 바뀌는 경우 체온조절 중추에 문제가 발생하여 감기, 코막힘, 기침, 오한 등의 여러 가지 호흡기 장애와 두통, 요통, 근육통, 소화불량, 피로 등이 발생하게 된다. 냉방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실내외 온도차를 5도 이내로 유지하고, 실내 온도를 25도 이하로 떨어뜨리지 않는 것이 좋다. 겉옷으로 체온을 유지하고 적당한 간격으로 환기시키며, 실내 습도는 40~60%로 유지하는 것이 좋다.

열로 인한 건강 장해는 열경련, 열피로, 열사병의 3가지로 나누고 있다. 심하게 땀 흘려 일한 후 갈증으로 물을 들이킬 때 염분을 섭취하지 않으면 전해질 이상으로 근육의 경련을 느끼게 된다. 이런 현상을 열경련이라고 하는데 예방을 위해서는 여름철에 목이 마르다고 해서 물만 마셔서는 안되고 물 1ℓ에 차숟가락 절반만큼의 소금을 넣어 마시는 것이 좋다. 열로 인한 체온조절의 실패로 염분과 수분이 부족하면 열피로가 발생하는데 심한 갈증과 피로감이 나타나고, 정신적인 불안감이나 판단력 장애 등이 나타날 수 있다. 체온은 38.9도까지 올라갈 수 있고 심하면 정신착란, 체온 상승, 혼수 등도 발생할 수 있다. 염분이 부족한 경우에는 식욕부진, 미식거림, 구토, 설사 등도 나타난다. 그늘진 곳에서 쉬면서 염분이 함유된 물을 마시면 곧 나아진다.

열사병은 대개 혹독한 군사훈련 과정이나 운동선수들에게 발생할 수 있다. 열사병은 시상하부에 있는 체온조절중추가 마비돼 제 기능을 상실함으로써 체온이 40도를 넘어서 우리 몸을 조절하는 중요한 호르몬이나 효소들이 제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심장, 신장, 간, 뇌, 췌장 등 모든 신체 기관에 문제가 발생해 빠른 시간내에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사망하게 되는 위험한 질환이다. 열사병이 발생한 경우 주위에 물이 있으면 일단 물을 끼얹고, 부채나 선풍기로 몸을 식혀 주어야하고 환자를 서늘하고 그늘진 곳으로 옮기고 얼음을 구할 수 있다면 얼음물을 이용해 체온을 떨어뜨린다.

식중독이란 섭취한 음식물의 독성 물질 때문에 발생한 일련의 증후군을 말한다. 장염의 경우 대부분 음식 섭취와 관련 이 있기 때문에 식중독과 따로 구분하기는 어렵다. 식중독은 통상적으로는 어떤 음식물을 먹은 사람들이 열을 동반하거나 또는 열이 없으면서 메스꺼움, 구토, 식욕부진, 설사, 복통 등을 동반하는 경우를 총칭해서 이르는데, 병원균에 의해서 오염된 식품을 섭취했을 때 주로 발병한다.

한 명에게서만 발생했을 경우에는 식중독이라고 진단을 내리기 어렵다. 여름철에는 식중독과 비슷한 증상을 나타내는 장염이 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같은 음식을 먹은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위와 같은 증상을 일으킬 때는 식중독을 의심할 수 있다. 식중독은 치명적인 것도 있으나 대개 증상이 경미한 것이 보통이며 전파성도 그리 문제가 되지 않는다.

예방을 위해서는 생식이나 온도가 부적절하게 조절된 냉장고 음식을 피하고 음식을 만들고 나서 공기 중에 4~5시간만 방치해도 식중독이 생기므로 음식조리 후에는 식사를 곧 하도록 한다. 식품이 채 가열되지 않은 상태로 식사하는 것을 피하고 음식을 요리할 때 재료나 기구가 오염되지 않은 것을 사용하도록 하고 물컵, 숟가락, 젓가락, 접시 등도 끓는 물에 소독한 후에 사용하도록 한다. 혈변이나 점액성변, 혹은 발열이 동반되는 경우는 항생제 투여를 고려한다. 항생제나 무분별한 지사제의 사용은 병의 기간을 길게 할 뿐이므로 금하는 것이 좋다. 증상이 지속될 경우 반드시 전문의와 상의해서 적절한 치료가 필요하겠다.

기 고

리더와 보스의 차이

한 국 환
봉산초 교사·前 광주시의회 정책네트워크 정책위원

남북 간 산업의 불균형과 노예제도로 생긴 갈등으로 촉발된 미국 남북전쟁(1861~1865) 때의 일이다. 전쟁이 한창일 때 링컨 대통령은 국방장관과 함께 전투 총책임자를 지휘하고 있는 맥클렐런 장군을 격려하기 위해 그의 야전사령부를 찾았다. 전투장에서 돌아온 장군은 방문한 링컨과 장관을 본체만체 하면서 그냥 자기 방 2층으로 올라갔다. 그러자 링컨과 장관은 그가 곧 내려오리라 생각하고 의자에 앉아서 기다렸다. 한참 후에서야 숙소의 하녀가 와서, "장군께서는 너무 피곤하여 제대로 뵙지 못하고 그냥 잠자리에 드신다고 대통령께 전해드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자 함께 동행한 장관은 '일개 장군이 직속상관인 자기는 고사하고 대통령까지 무시하는' 것에 분개, 장군을 당장 직위해제 시킬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링컨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아니야, 이 치열한 전투에 지친 맥클렐런 장군은 우리나라가 분열되지 않고 연방정부를 지키기 위해서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 꼭 필요한 인물일세. 그래서 나는 필요하다면 기꺼이 그의 더러워진 군화도 깨끗이 닦아주고, 말의 고삐도 잡아줄 것이네. 이 전시상황에서 나는 그를 위해서는 무슨 일이든 하겠네" 하고 말했다. 참 감동적인 이야기다.

지금까지 인류 역사에 출현한 국가 중 '초강대국'이라고 하여 초(超)자를 쓸 수 있는 유일한 나라는 미국이라고 학자들은 말한다. 이는 링컨과 같은 훌륭한 위인들이 미국 발전의 초석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강대국을 이룰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든다.

올해 6·4지방 선거로 선출된 단체장과 의원은 총 3952명으로 그들은 선거기간 동안에 그 지방의 다양한 발전방안과 미래의 청사진을 제시하며 당선되었다. 그들은 그 지역정부를 이끌어갈 리더로서 무한경쟁시대 속에 생존을 위한 수많은 창의적 전략으로 많은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우선 선거 승리보다는 다른 후보를 지지한 결과와 타후보의 공약을 참고하여 민심을 읽을 줄 알아야 한다. 이번 지방선거는 4월에 터진 '세월호 참사'로 드러난 무능 정부의 심판론이 대세였고 정권심판과 견제의 분위기가 높았지만 소위 '박근혜 대통령 마케팅'으로 선거를 치른 새누리당은 생각보다 좋은 결과를 얻었다. 한편, 새정치연합은 '세월호 참사'로 여당의 무능력을 비판하며 유리한 국면을 맞은 듯 했으나 인천에서 졌고, 더군다나 안산 '단원고'가 있는 경기에서 패함으로써 그 지역 민심의 흐름을 예측하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지역사회의 밑바닥 상황을 읽지 못하고 자신만의 목소리만 높였던 것이다. 결국 광역단체장과 기초단체장은 선거결과를 아전인수 격으로 해석하지 말고 더 낮은 자세로 민심에 희망을 주는 지방정부를 이끌어야 한다.

요즘 21세기의 참다운 '리더(Leader)와 보스(Boss)'에 대한 도서와 인터넷에 소개된 것을 보자. 리더는 사람들을 원만히 이끌고 가지만 보스는 그들을 강제로 몰고 간다. 리더는 '우리'를 강조하지만 보스는 '나'를 강조한다. 리더는 '가자'라고 말하지만 보스는 '가라'고 말한다. 리더는 희망을 주지만 보스는 겁을 준다. 리더는 대중의 눈으로 세상을 보지만 보스는 자신의 눈으로만 세상을 본다. 리더는 반대하는 사람까지도 보듬지만 보스는 그를 미워한다. 리더는 타협과 대화를 즐기지만 보스는 타협과 대화를 거부한다. 리더는 부하들의 짐을 덜어주지만 보스는 무거운 짐을 떠넘긴다 등. 결국 참다운 리더는 남을 믿고 스스로 존경을 모으며, 희망찬 내일을 위해 일하며 여러 의견을 들을 줄 아는 지도자다. 관리만 잘하는 '매니저'가 아니라 미래를 예측하며 봉사와 헌신으로 섬기는 '서번트 리더십'(Servant Leadership)을 발휘해야 한다. 그래서 '땀이 없으면 아무 일도 이룰 수 없다'는 무한불성(無汗不成) 정신으로 책무를 다했으면 한다.

민선 6기 단체장과 의원들은 지역사회를 위해 다양한 의견을 경청·수렴하며 링컨처럼 부하직원들을 늘 인정하고 배려하며 희망을 주는 리더로서 지방정부를 잘 이끌어가길 바란다.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십시오.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0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96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

社 說

교황 방한, 주목되는 화해·평화의 메시지

'가난한 사람의 벗' 프란치스코 교황이 14일 4박5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한다. 교황의 방한은 1984년과 1989년 요한 바오로 2세에 이어 역대 세 번째다.

교황은 방한 기간 아시아 가톨릭청년대회와 천주교 124위 시복식 집전, 장애인 요양시설인 충북 음성 꽃동네 방문, 세월호 생존자와 유족 접견, 제주 강정마을 주민과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등을 위한 평화와 화해의 미사를 집전한다.

교황의 한국 방문은 사목(司牧) 활동이 주된 목적이지만 결코 종교적 의미만 큰 것은 아니다. 교황은 전 세계 가톨릭 교회의 수장으로서 위상과 영향력은 막중하다. 특히 프란치스코 교황은 가난하고 소외된 자를 위한 교회, 전쟁이 아닌 상호 이해와 화해를 통해 평화를 이뤄야 한다는 사목 정신 실천과 리더십으로 세계인의 추앙을 받고 있다. 지구촌의 시선이 한국으로 쏠리는 이유다.

지금 우리 사회는 양극화로 인한 극심한 계층 간의 갈등과 분열, 세월호 참사로 드러난 국가 운영시스템의 총체적 부실,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 남북 대치상황 등으로 어둡기만 하다. 이런 현실에 교황이 우리 사회에 전하는 메시지는 그 해답이라는 점에서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한편으로 교황의 이번 한국 방문은 광주·전남 지역민들에게도 남다른 의미를 지닌다. 역대 265명의 교황 가운데 한국을 첫 방문한 요한 바오로 2세는 1984년 5월 3~7일의 방한 기간 가장 먼저 찾은 곳이 광주였다. 또 교황은 당시 한국 정부의 반대에도 소록도를 방문, 천대받던 한센병 환우들을 끌어안았다. 상처받은 광주·전남의 아픔을 위로하기 위해서였다.

우리는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각별한 배려와 봉사, 화해와 통합, 한반도 평화를 역설한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한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그의 인류애에 무한한 존경을 보낸다.

서비스산업마저 '수도권 배 불리기' 하나

우리 경제의 신성장동력으로 서비스산업 활성화 카드가 제시됐다. 그러나 주된 개발 계획이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광주·전남·북 등 호남권의 소외가 더 심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부는 지난 12일 보건의료, 관광, 교육, 금융, 소프트웨어, 콘텐츠, 물류 등 7개 분야의 각종 규제를 풀어 서비스산업의 획기적인 발전을 꾀하겠다고 밝혔다. 규제 완화로 관련 산업에 15조 원의 직접적인 투자 견인 효과를 거둬 18만 명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것이 정부의 복안이다.

하지만 이 계획을 뜯어보면 또 다른 지역 차별 및 불균형의 암초가 도사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번 사업은 인천 영종도 드림아일랜드·파라다이스, 제주도 신화역사공원 등 4개 복합리조트 설립 지원과 경기도 송산 국제테마파크, 한강 관광명소화가 주축을 이루고 있다.

따라서 정부의 방침대로라면 서비스산업에서도 '수도권 배불리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광주·전남·북의 경우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솔라시도'(J프로젝드), 새만금 등 유망한 문화관광·서비스산업의 토대를 갖추고 있지만 적극적인 지원 대책은 찾아보기 어렵다. 계획대로 사업이 진행된다면 2차 산업에 이어 서비스분야에서도 수도권-지방 간에 불균형을 초래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물론 교통과 숙박 인프라, 문화자원이 집중된 수도권에 대한 투자 효과는 인정한다. 그러나 광주·전남·북은 해외관광객이 크게 늘 것으로 예상되는 중국과 가장 가까워 집중 투자가치가 충분하다. 또 무안국제공항, 광양컨테이너 부두 등이 이미 갖춰진 만큼 국가 경제 차원에서도 활용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이처럼 개발 가치가 높은 호남권의 서비스산업 육성에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지방자치단체도 정부의 개발방향을 예의주시하고, 적극 대응함으로써 지역 경쟁력을 높여야 할 것이다.

無 等 鼓

충무공의 입술

우리나라 화폐 중 동전에 새겨진 유일한 인물이 있다. 당장 주머니에서 100원짜리 동전을 꺼내 보라. 거기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다. (1원 짜리에는 무궁화, 5원에는 거북선, 10원에는 다보탑, 50원에는 벼, 500원에는 학)

동전 속의 장군은 갑옷이나 전립이 아닌 관복 차림이다. 실제로 이순신이 살아생전 그 옷을 입은 적은 없다. 다만 이 초상화는 영의정의 예우를 갖춰 나중에 그려졌을 뿐이다.

16세기 당시의 충무공 초상화는 현존하지 않는다. 따라서 많은 화가들이 상상력을 발휘해 충무공을 그렸다. 이 중에서 표준영정으로 지정돼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게 장우성(1912~2005) 화백이 그린 초상이다. 유성룡의 '징비록'에 나오는 기록을 토대로 무인의 풍모보다는 고결한 인품이 강조됐다. 징비록은 충무공에 대해 '용모아칙'(容貌雅飭)이라고 기술하고 있다. 용모가 단아하고 조심스럽다는 뜻이다.

그러나 이는 별로 믿기 어렵다. 추상적이고 상투적인 수사이기 때문. 김덕령 장군에게도 똑같은 표현을 한 사례가 보인다. 요즘으로 말하자면 학교에서 선생님이 학생들의 생활기록부에 그냥 '용모 단정하고' 라고 적는 식이다.

그렇다면 실제 장군의 모습은 어떠했을까. 믿을 만한 유일한 기록이 있다. "말과 논리와 전술과 지모가 난리를 진압할 만한 재주이나 얼굴이 풍만하거나 후덕하지 못하며 입술이 말려 올라간 듯 뒤집혀서 복장(福將)은 아니라 여겼다." 이순신과 같은 해 무과에 합격한 동기생 고상안(1553~1623)이 충무공을 묘사한 문장이다.

여기에 나오는 '건순'(蹇唇)이란 표현은 입술이 뒤집어졌다는 뜻이다. 흑인들에게서 볼 수 있는 속칭 '까진 입술'까지는 아니더라도 올라붙은 윗입술이 크고 두텁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를 토대로 장군의 모습을 상상해 보면 웅혼한 기상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아 우리가 기대하는 '구국의 영웅'은 간 데 없다.

하지만 장군의 모습은 임진왜란을 일으킨 도요토미보다는 좀더 낫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든다. 도요토미는 외모가 원숭이를 닮았다고 해서 '사루'(猿)라는 별명이 붙여질 정도의 추남이었다고 하니까. /이홍재 논설고문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申港樂 편집국장 奇賢鎬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우편번호 501_710)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32
편 집 부 2200-649 문화생활부 2200-661
정 치 부 2200-642 여론매체부 2200-696
〈대표 FAX 222-4918〉 체 육 부 2200-697
사 회 부 2200-663 사 진 부 2200-693
〈대표 FAX 222-4267〉 조 사 부 2200-571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8005〉 〈FAX 222-0195〉
광고마케팅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AX 227-9500〉 〈FAX 227-9500〉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프로젝트팀 2200-555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